중국 넘은 태극전사…축구 4연패까지 '1승'

이영준 동점골·배준호 역전포 2-1 승…4회 연속 결승 진출

양궁 컴파운드 은·동 수확…사이클 남녀 단체추발 나란히 '동'



30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후반전 한국 배준호가 헤더로 역전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축구가 중국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뒀다.

한국은 대회 12일차인 30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24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47개 등 총 9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를 유지했다.

이날 가장 반가운 승전보는 축구에서 날아왔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중국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최다 우승국인 한국은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개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제 금메달까지 남은 경기는 단 한 경기다.

출발은 불안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수비진을 두껍게 세운 중국을 상대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전반 22분 왕위둥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11분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33분 엄지성이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그라스호퍼)이 머리로 받아 넣으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베트남과의 8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이영준은 이번 대회 3호골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후반 들어서도 중국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을 구한 것은 배준호(스토크시티)였다.

후반 37분 왼쪽 측면을 파고든 엄지성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으로 쇄도한 배준호가 머리로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천금 같은 역전골이었다.

한국은 이후 공격수 이영준 대신 수비수 박경섭(인천)을 투입하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중국의 막판 공세를 막아내며 한 골 차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최근 이 연령대 대표팀 맞대결에서 중국에 두 차례 연속 패했던 아쉬움도 씻어냈다.

한국은 10월 3일 오후 7시30분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일본 준결승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양궁에서는 컴파운드 대표팀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정윤(창원시청)과 최용희(현대제철)가 호흡을 맞춘 한국은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와 157-157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슛오프에서 19-20으로 석패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부터 세 대회 연속 결승에 오른 한국은 또 한 번 은메달을 획득하며 이 종목 첫 금메달을 다음으로 미뤘다.

강연서(성사중)·박정윤·박예린(한국체대)이 출전한 여자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이 나왔다. 한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229-228로 한 점 차로 꺾었다. 2022 항저우 대회 준결승에서 대만에 당했던 패배도 설욕했다.

반면 최용희·김종호(이상 현대제철)·최은규(울산남구청)가 나선 남자 단체전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에 233-234로 패해 4위에 머물렀다. 한국 남자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컴파운드는 이날 혼성 단체 은메달과 여자 단체 동메달로 단체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랙 사이클에서는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정·장수지(이상 상주시청)·노윤서(대구시청)·신지은(금산군청)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시즈오카현 이즈 벨로드롬에서 열린 여자 단체추발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완주 전에 따라잡는 압도적인 레이스로 3위를 차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금메달 이후 2022 항저우 대회에서 입상에 실패했던 한국 여자 단체추발은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복귀했다.

특히 이번 대회 여자 도로 독주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냈던 신지은은 단체추발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해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박상훈(인천광역시청)·홍승민(의정부시청)·김현석(연천군청)·민경호(서울시청)가 나선 남자 대표팀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따돌렸다.

한국은 3분55초933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카자흐스탄(3분58초718)을 2.785초 차로 제치고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늘의 경기 (한국시간)

종목	내용	시간	선수
양궁	컴파운드 여자 개인 8강	09:18	강연서
양궁	컴파운드 여자 개인 8강	09:36	박정윤
유도	여자 -57kg급 16강~	11:00	허미미
유도	남자 -81kg급 16강~	11:35	이준환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준결승	13:30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하키	남자 하키 준결승전	19:00	대한민국-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메달 현황 (30일 오후 5시 기준)

금	은	동	합계
24	28	47	99



'타이거즈 최다 41호' 김도영, 생애 첫 홈런왕 노린다

AG 후 첫 타석서 대포…2위 오스틴·힐리어드와 2개 격차

팀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남은 11경기서 타이틀 굳히기

KIA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아시안게임 공백을 딛고 생애 첫 홈런왕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김도영은 지난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T위즈와의 경기에 3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41호 홈런을 터뜨렸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난 28일 귀국한 지 하루 만이었다.

첫 타석부터 방망이가 매섭게 돌았다. 김도영은 1회말 1사 1루에서 KT 선발 로건 앨런의 2구째 147㎞ 직구를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지난 8일 삼성라이온즈전에서 40호포를 쏘아 올린 이후 21일 만에 터진 홈런이었다.

의미도 남달랐다. 김도영은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가 작성한 40홈런을 넘어 해태 시절을 포함한 타이거즈 구단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의 새 주인이 됐다. 누구도 넘지 못했던 기록이다.

김도영은 지난달 26일 롯데자이언츠전에서 39호포를 터뜨려 2024년 자신이 작성한 한 시즌 최다 홈런(38개)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8일 40홈런 고지를 밟았다. 2018년 김재환(당시 두산), 박병호(당시 넥센), 한유섬(당시 SK) 이후 8년 만에 한 시즌 40홈런을 때려낸 국내 타자로도 이름을 남겼다.

이제 시선은 생애 첫 홈런왕으로 향한다.

김도영은 29일 경기 전 기준 41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공동 2위 오스틴 딘(LG트윈스)과 샘 힐리어드(KT·이상 39개)와 격차는 2개다.

아시안게임 차출 전까지만 해도 김도영에게 안심할 수 없는 경쟁이었다.

특히 김도영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추격자들에게는 격차를 좁힐 기회가 열렸다. 힐리어드는 9월 들어서만 홈런 9개를 몰아치며 지난 24일 시즌 39호포까지 터뜨려 김도영을 1개 차로 추격했다.

하지만 김도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선두는 바뀌지 않았다. 오스틴과 힐리어드가 나란히 39홈런에서 멈춘 가운데 김도영은 돌아오자마자 홈런을 추가하며 격차를 다시 2개로 벌렸다.

남은 11경기가 생애 첫 홈런왕을 결정할 승부처다.

공교롭게도 시즌 막판에는 홈런왕 경쟁자들과 맞대결도 이어진다. 김도영은 KT와의 홈경기에서 힐리어드와 홈런 경쟁을 벌인 뒤 LG와의 경기에서는 오스틴과 마주한다. 맞대결 기간 김도영이 홈런을 추가한다면 경쟁자들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도영에게 홈런왕은 아직 없는 타이틀이다.

2024년 38홈런-40도루를 기록하며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고 정규시즌 MVP까지 거머쥐었지만, 홈런왕은 46개를 때려낸 맷 데이비슨(당시 NC)의 몫이었다.

2년 뒤 김도영은 한층 더 강력한 장타력을 앞세워 다시 홈런왕에 도전하고 있다. 타이거즈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이미 김도영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제 남은 목표는 11경기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생애 첫 홈런왕 타이틀까지 품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구단 홈런 신기록을 연이어 거머쥔 김도영의 방망이가 시즌 마지막에는 홈런왕이라는 또 하나의 결실까지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12년 만의 한국 복싱 남자 금메달 정조준

장동환 '세계 1위' 할로코프와 격돌…김민성, 안쿠시와 대결



29일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의 니시오 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복싱 남자 60kg급 준결승 한국 장동환이 타지키스탄 아크말 우바이도프를 상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복싱이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한국 남자 복싱 차세대 주자 장동환과 김민성(이상 한국체대)은 다음 달 2일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시 니시오 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복싱 결승전에 나란히 출격한다.

준결승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은메달을 확보한 두 선수는 이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

선수단을 이끄는 김호상 복싱 대표팀 감독 역시 선수들의 상승세와 남다른 동기부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호상 감독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자 선수들이 먼저 좋은 성적을 내면서 남자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과 힘이 됐다"며 "장동환과 김민성 모두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남자 복싱은 2014 인천 대회 신종훈(남자 49kg급)과 함상명(56kg급)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금맥이 끊겼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임애지가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지만, 남자 선수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여자 복싱을 향했던 것도 사실이다.

남자 복싱 선수로는 오랜만에 결승에 진출한 장동환과 김민성 모두 대회 초반이 가장 큰 고비였다.

김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첫 경기를 유독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하루하루 치러지는 경기마다 기량이 올라왔고, 이기면서 자신감도 붙었다"고 돌아봤다.

마지막 관문에서 마주할 상대들은 체급별 세계 최정상급 복서들이다.

남자 60kg급 결승에 나서는 장동환의 상대는 이 체급 세계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강자 압두말릭 할로코프(우즈베키스탄)다.

원래 체급이 65kg급인 장동환(세계 26위)은 체급을 내려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줄줄이 강호를 물리쳤다.

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선수 모두 세계 상위 랭커들이다. 특히 장동환 선수가 속한 체급은 원체 강자들이 몰려 있다"면서도 "첫날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던 카자흐스탄 선수를 만났을 때도 차분하게 연구해서 뚫어냈다. 상대인 우즈베크 선수가 아웃복싱을 구사하는데, 장동환은 인파 아웃을 모두 할 줄 아는 선수인 만큼 그에 맞춰 빈틈을 파고들 작전을 철저히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자 80kg급 결승에 오르는 김민성(세계 10위)은 랭킹 12위의 안쿠시(인도)와 맞붙는다.

랭킹 차이가 크지 않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둔 대표팀의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한국 남자 복싱을 되살리겠다는 사명감이 선수들의 투지를 불태운다. 연합뉴스

전남 유도 유망주, 세계무대서 '은빛 메치기'

박민호·최민준 U18 굳히기·이민후·정현준 U21 메치기 준우승

전남 유도 유망주들이 세계무대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민호(광양하이텍고)·최민준(광양광영고), 이민후·정현준(이상 우석대)는 최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열린 '2026 세계KATA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두 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춰 유도 기술의 정확성과 완성도 등을 겨루는 카타(KATA) 종목의 국제대회로, 34개국 45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박민호·최민준은 U18 굳히기 본 종목에서 예선 조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상위 6개 팀이 겨룬 결선에서는 365.5점을 받아 이탈리아 팀에 불과 2.5점 뒤진 2위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두 선수는 팀을 결성한 지 1년 9개월 만에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르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양유도관에서 함께 성장한 이민후·정현준도 은빛 메달을 보탰다.

올해 나란히 우석대에 진학한 두 선수는 U21 메치기 본 주니어부 예선을 조 1위로 통과한 뒤 결선에서 360.5점을 기록했다. 금메달과의 격차는 불과 1.5점이었다. 특히 두 선수는 10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